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정치, 사회부 담당자
발 신	탁틴내일
문 의	탁틴내일(02-338-7480) 담당자 강선헌 (070-4077-3863)
제 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국제단체 입장 발표
발 송 일	2020년 7월 22일
매 수	총 2매

지난해 대규모 국제경찰 협력 수사를 통해 검거한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하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020.7.6.)으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2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 웰컴투비디오는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2만 건이 넘는 아동성학대 영상을 배포하였으며, 운영자인 손정우는 이용자들에게 성인 포르노는 공유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공지 하는 등 아동 성학대 영상만을 노려 유포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사이트에서 공유되던 영상 피해자들 중 많은 수는 채 2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서 법원이 손정우가 아동성학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18개월에 그쳤고, 소위 ‘계란 18개를 훔친 것과 같은 처벌’로 인해 많은 원성을 샀다. 이에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아동성착취 시장”을 운영한 죄로 손정우를 고소하였고, 미 법무부가 손씨가 형량을 마치는 2020년 4월에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올해 7월, 서울고법에 의해 요청이 기각되었다.

서울고법의 송환요청 기각 판결은 한국 내에서도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송환요청을 기각당한 미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전 세계 109개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성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활발히 임하고 있는 ECPAT International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2020.7.16.).

인터폴과 협력하여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던 ECPAT International은 웰컴투비디오의 악질적인 범죄성을 명시하며(15세 이하 아동의 영상만 올릴 것을 업로드 조건으로 설정한 점, 2세 이하 ‘유아’ 폴더가 따로 있던 점, 방대한 아동성착취물 보유량 등), 한국정

부에게 손씨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온라인 아동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형량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액팟 코리아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탁틴내일(액팟 코리아)가 주관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방지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한국에 방문했던 토마스 물러(Thomas Mueller) 부대표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정부는 온라인 그루밍 등을 포함한 수많은 성착취 및 성학대 사례들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조치로서 의제강간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다(n번방 방지법).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한국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충분한 법적 허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성착취 문제에 대한 피해자중심 접근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동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오랫동안 고심하도록 의미있는(significant)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씨의 미국송환 요청 기각 결정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마스 물러 부대표의 말마따나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이 성착취 범죄를 보다 쉽게 저지르고 가벼운 형량만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성범죄 천국’을 찾고 있는 현재, 웰컴투비디오로 38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만들어낸 손정우를 18개월의 처벌만으로 풀어준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국이 전혀 ‘의미있는’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함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에 이어 발생한 n번방 사건으로 끓어올랐던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내 여론은 현재 다른 사건들로 인해 또다시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 모두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끓다 만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리도록 방치하고 잊어버린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은 ‘성범죄 천국’으로서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을 능가하는 더 끔찍한 아동성착취물, 아동성학대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입장글 원본링크:

<https://www.ecpat.org/news/w2v-ecpat-korea-urges-government-to-investigate/>

ECPAT International은

109개국 121개 단체가 ‘아동 성착취 근절’이라는 공통의 비전으로 성매매, 온라인, 여행 및 관광,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열악한 환경 속의 아동, 아동 조혼 등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착취에 대해 조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0년 설립하였으며 UN아동성착취근절 세계대회 1,2,3차 대회를 모두 주관하였습니다.